

공군발전협회 연구위원 신규위촉 및 연구용역 초도보고



공군발전협회는 12월 10일 신규 연구위원 위촉식을 열고 김영권·김환중 회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계훈 회장은 환담 자리에서 “이번 연구용역은 드론과 상용 UAV, 민간항공 등 복잡하게 얽힌 공역 문제 해결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며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당부했다.

이어 이기훈 연구위원과 함께 신규 위원들은 항공우주력연구원장 주재로 합참 연

구용역 과제인 ‘비행안전구역 미준수 사례 및 대책’에 대한 초도보고 토의를 진행하며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12월 23일에는 임희주 서원대학교 교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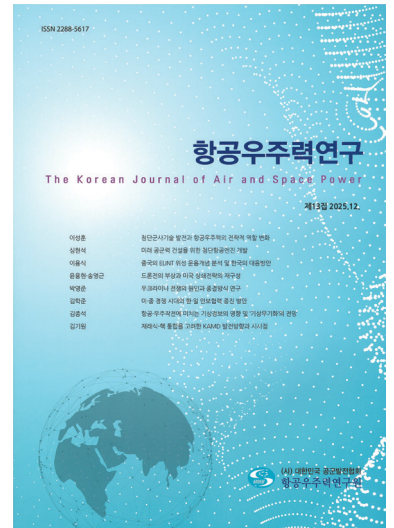
임희주 교수는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항공우주력연구원에서 진행하려는 첨단 ICT와 AI 관련 연구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군발전협회, ‘항공우주력연구 제13집’ 발간

공군발전협회(회장 이계훈)는 공군력과 연계성있는 국방안보분야, 특히 항공전략 및 국가안보, 무기체계 분야에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항공우주력연구 제13집’을 12월 30일 발간했다.

연구지에는 첨단군사기술 발전과 항공우주력의 전략적 역할 변화(이성훈), 미래 공군력 건설을 위한 첨단항공엔진 개발(심현석), 중국의 ELINT 위성 운용개념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이용식), 드론전의 부상과 미국 상쇄전략의 재구성(윤용현, 송영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과 종결방식 연구(박영준), 미중 경쟁시대의 한일 안보협력 증진방안(김학준), 항공우주작전에 미치는 기상정보의 영향 및 ‘기상무기화’의 전망(김종석), 재래식-핵 통합을 고려한 KAMD 발전방향과 시사점(김기원) 등 8편이 수록되었다.

학술지인 ‘항공우주력 연구’는 국내안보



전문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안보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군항공과학고총동창회 회장단 내방



공군항공과학고총동창회 김진홍회장과 사무총장, 그리고 지회 부회장 등 3명이 12.23(화) 본회를 방문하여 이계훈 회장과의 환담을 나누었다. 김진홍 회장은 공군항공과학고총동창회의 주요 활동사항 등을 간략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 후 같이 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하였으며, 본회 발전기금으로 200만원을 전달하였다. 본회 이회장은 환담에서 “공군항공과학고총동창회의 발전된 모습에 너무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욱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사총동창회 신임 회장단 취임 인사



2026년 1월 1일부로 새롭게 취임한 33차 공사 총동창회 임원(황성진 회장, 조광제 부회장, 위강복 사무총장)들이 1월 7일 취임 인사차 본회 이계훈 회장을 예방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본회 이 회장은 “신임 회장단의 취임을 축하하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협조로 두 단체 발전과 공군 발전을 지지/후원하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황성회와 송년 간담회 실시



공군전우회 중앙회와 황성회(준사관전우회)가 지난 12월 10일 간담회를 열고 전우회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황성회에서 장군 회장을 비롯해 2026년부터 새롭게 회장을 맡게 될 고정호 신임회장과 감사, 수석부회장, 수석이사, 사무국장 등 6명이 참석했으며, 중앙회에서는 이계훈 회장과 임원진이 함께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황성회를 잘 이끌어준 장군 회장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고정호 회장의 혁신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하며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고정호 신임회장은 “우리는 한몸과 같으므로 전우회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 미래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한 해를 돌아보며 추억을 나누고, 다가오는 2026년을 함께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부서관전우회, 군무원회 임원진 격려

본회 이계훈 회장이 12월 1일 부서관전우회와 군무원회 임원진을 초청해 격려오찬을 진행했다.

이 회장은 올 한 해 두 단체가 보여준 화합과 단합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서로 정을 나누는 단합의 한 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이러한 활동을 더욱 강화해 서로를 이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임원진은 동호회 운영과 사천 안보현장 방문 등 건의사항을 제시했고, 내년



에도 친목 도모와 전우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인공지능 발전 콘퍼런스, 자체개발 AI 발표



공군이 미래 항공우주력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 융합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10월 2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공군 인공지능 발전 콘퍼런스'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와 연계해 군·산·학·연 전문가와 미국·폴란드 등 우방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장현 성균관대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AI 기술의 선제적 적용이 미래 항공우주력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공군은 자체 개발한 6종의 AI 적용체계와 실시간 통역체계를 공개하고, 'Air GUARDIAN'과 'Air X Force'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단계적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AI 파일럿, 전영역자휘통제체계(JADC2) 등 미래 전장 대비 전략을 논의하면서 이번 논의가 강력한 항공우주력 건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베트남 MOU 체결로 실질적 협력 강화

공군은 11월 27일 손석락 참모총장이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부총선 베트남 방공공군사령관과 양자대담을 갖고 '공군 대 공군회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를 공유하며 국방·방산·교육훈련·의무·군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24개월 주기로 정례회의를 개최해 공동 발전과 우호 증진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손 총장은 “다층적 갈등요인이 중첩된 안보환경 속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MOU를 계기로 양국 공군이 신뢰를



공고히 하고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미래 지향적 파트너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베트남 공군 대표단은 예천기지를 방문, FA-50 전투기와 천궁Ⅱ 미사일 성능을 확인하였다.

2025 우정 피트니스 대회 개최

공군 장병들이 꾸준한 체력단련으로 다져온 건 강미를 선보였다.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와 방공관제사령부는 지난 11월 26일 오산기지 칠성홀에서 '2025년 공군인터넷전우회(ROKAFIS) 우정 피트니스 챔피언십 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ROKAFIS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격오지부대 체력단련장 개선과 헬스기구 확보에 20억 원 이상을 지원해 장병들의 신체 단련과 건강한 병영생활을 뒷받침해 왔다. 이번 대회는 그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선을 통과한 16명의 장병은 본선에서 체급별 규정 포즈와 자유 포즈를 선보이며 기량을 겨뤘고, 심사는 양 사령부 지휘부와



ROKAFIS 관계자들이 체형·균형미·표현력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진행했다. 그 결과 8198부대 안성우 상병(미들급 최강상) 등 3명이 우수자로 선정됐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메달과 격려금이 수여되었으며, 본 대회를 계기로 건강한 병영문화 확산을 기대하게 되었다.

공군 HH-32 헬기 퇴역식

공군의 재난·재해 대응을 책임져 온 HH-32 헬기가 지난 12월 12일 공식 퇴역했다.

공군6탐색구조비행전대는 주기장에서 공중기동정찰사령관 주관으로 퇴역식을 열고 21년간의 활약을 기렸다. 해당 기종을 운영하던 235탐색구조비행전대는 12월 2일 해체식을 가졌다.

HH-32는 2004년 불곰사업을 통해 도입된 이후 야간투시경(NVG)과 화재 진화용 '밸리 탱크'를 장착하며 탐색구조와 산불 진화 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세월호 참사와 대형 산불 진화 등 국가적 재난 현장에 투입돼 국민의 생명을 지켜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정비 지원이 어려워지면서 퇴역이 결정됐고,



지난 10월 마지막 비행을 마쳤다. 기념 문구 '다른 방향 하나의 사명'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로터처럼 서로 다른 임무 속에서도 구조라는 하나의 사명을 수행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6전대는 2031년을 목표로 중형헬기 도입을 추진하며, 해체된 대대 재창설도 준비 중이다.

공군, '고교생 예비부사관후보생' 제도 신설



공군이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부사관 획득·운용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핵심은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사관후보생' 제도 신설로, 오는 3월부터 시행해 연간 부사관 획득 목표의 20%를 충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국내 고교 2~3학년 재학생으로, 내신 성적과 출결, 면접 등을 종합 평

가하며 특성화고 부사관과 학생은 학교장 추천을 통한 특별전형도 가능하다. 공군은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부사관 인력 기반을 안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인사제도도 개선된다. 기존 장기복무심사와 동시에 진행되던 '특기 전환' 절차를 분리해 적성에 맞는 특기로 복무를 이어갈 기회를

확대한다. 진급 평가 역시 해외교육·어학 등 직무 외 요소에 상한선을 두고 본연의 임무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장기복무 선발에서는 공중군무자 보직점수와 다자녀 군인 우대, 격오지 근무 점수 개선 등이 반영돼 인력 운용의 유연성과 형평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군 '제15회 갈등관리 세미나' 개최

공군은 지난 11월 11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제15회 민·관·군 갈등관리 세미나를 열고 공공갈등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는 공군본부, 한국행정연구원,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가 공동 주관했으며, 각 군과 정부·지자체 갈등관리 실무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구상모 공군본부 정책실장의 개회사, 가상준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장의 축사,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표에서는 ▲채종현 한국행정연구원 소장이 '공공갈등과 갈등관리 제도 이해' ▲최현문 한양대 박사가 '미사일방어부대 배치 관련 갈등관리 방안'



▲김강민 단국대 교수가 '군 공항 갈등과 갈등영향분석 문제점'을 각각 소개했다.

김영일 공군본부 갈등관리과장은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민·관·군 협력과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갈등관리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6전비 115전투비행대대 31년 대기록 달성



공군16전투비행대대가 예하 115전투비행대대의 13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 달성을 기념하는 시상식을 12월 16일 개최했다. 채운기 공군공중전투사령관 주관으로 열

린 행사에서는 강필립 소령, 이상민 대위, 이영민 원사가 업무 유공자로 선정돼 참모총장 표창을 받았다.

이번 기록은 1994년 첫 비행 이후 31년 1개월 만에 달성된 성과로, 국산 초음속 훈련기 TA-50을 활용해 정예 전투조종사를 양성하며 이룬 점에서 의미가 크다.

16전비는 조종사·정비사·작전지원요원 모두가 ‘우리는 하나! 땀방울을 밝히자!’라는 정신으로 단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군교육사령부, 대한민국 안전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공군교육사령부가 지난 11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교육사는 지휘관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

와 전 장병의 기본·절차 준수에 기반한 업무 수행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힘써왔다. 특히 소방·교통·시설 분야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며 분기별 안전 대비태세 훈련을 실시하고, 가상·증강 현실(AR·VR)을 활용한 훈련장을 구축해 유사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준선(준장) 교육사령관 직무대리는 “이번

수상은 전 장병이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공군인들이 교육과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군, 2025 열린우주포럼 개최

공군은 11월 5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과 함께 ‘2025 열린우주포럼(Open Space Forum)’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주영역인식·통제능력 발전을 위한 민·군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렸으며, 민·관·군 우주 분야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행사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개회사(대독), 항우연·천문연 원장의 환영사,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국방위 간사들의 축사,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브라이언 디나로 미 인도태평양우주군사령관의 영상 메시지, 유창경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의 기조



강연, 그리고 주제발표 및 패널 토의로 이어졌다.

이번 포럼은 2019년 ‘민·군 우주발전 세미나’에서 출발해 2020년부터 ‘열린우주포럼’으로 발전한 행사로, 한국 국방 우주력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0전비 201비행대대·정비중대 해체

공군 10전투비행단 201전투비행대대와 정비중대가 1월 5일부로 해체됐다. 1976년 육군사업의 일환으로 창설된 201대대는 F-5E 타이거 II 전투기 7대로 수원기지에서 창설되어 1982년부터 KF-5E/F 제공호를 운용하며 수도권과 서북부 영공방위를 맡아왔다.

지난 50년간 대대는 1983·1986·1996년 미 그-19기 귀순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2003년에는 공군 최초로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했다. 또한 한국형 GPS 유도폭탄(KGGB)을 전력화해 적 도발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남겼다. ‘인솔매대대’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팀워크를 중시한 201대대는 정비와 무장을



담당한 201정비중대의 헌신적 지원 덕분에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 이재인 중령은 “KF-5 조종사로서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큰 영광”이라며 “언젠가 새로운 전투기를 운용하는 부대로 재창설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다시 최전방에 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년 병오년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국방·병영·공군 주요정책



-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 4년 만에 1000원 인상하여 일인당 일 기본급식비 14000원 배정
- 군인자녀 대상 자율형 공립고 지정·설립 : 2026년 3월 3일, 영천고(신입생 132명, 6학급) 개교
- 장기간부 도약적금 시행 : 초급간부 장기복무 유도과 사기 진작을 위한 도약적금(월 30만원) 지원
- 공군 자체개발 생형형 AI 모델 ‘에어워즈 3.0’ 전 부대 도입 : 신뢰성 확보 및 검색증강기술 적용
- 군 경력자 대상 부서관 훈련기간 단축 : 예비역 간부 등 군 경력자 재입대 시 최대 6주 단축
- 하늘사랑장학재단 지원사업 확대 및 개선 : 순직조종사 유자녀 사회진출 장려금(1인 1000만원) 신설

경제·복지 분야



- 최저임금 인상 : 시급 10320원(월 215만 6880원)으로 인상
- 아동수당 : 만8세까지 확대(수도권 10만, 비수도권 10.5만 + 인구감소지역 3만원 추가 지급)
- 청년미래적금 : 소득 6천만원 미만 청년에게 월 50만원 납입 시 정부 지원 6% 추가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 현행 9%에서 9.5%로 인상

교통·생활 분야



- 교통정액패스 모두의 카드 출시 : 월 9~10만원 결제 시 전국 대중교통 20만원 한도 이용
- 전기차 지원 : 전기차 보조금 + 내연기관차 폐차 후 구매 시 200만원 내외 추가지원금 별도 지급
- 개인통관번호 유효기간 도입(1년),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항목 112종으로 확대

광주지부

광주지부(지부장 손정문)는 지난 10월과 11월에 걸쳐 다양한 행사를 통해 현역과 예비역 간의 유대와 전우애를 강화하였다.

10월 25일, 광주기지 체력단련장에서 열린 전투요원 체력단련대회에 제1전투비행단(단장 준장 김중수)의 초청으로 참석하여 현역과 예비역의 친목을 도모하였는바, 지부에서는 위문금을 전달하고 손정문 지부장이 상품을 지원하였다. 또한 10월 30일에는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133-3포대를 회장단 11명이 방문하여 후배 장병들을 위문하였다.

11월 7일, 제1전투비행단 연병장에서 열린 체육대회에 광주지부가 참석하여 축구



등 운동을 함께하며 후배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특히 자전거 10대를 상품으로 협찬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대구지부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달빛 친선교류 행사는 11월 26일에 제1전투비행단에서 친선운동과 만찬을 진행하였으며, 대구지부 12명, 광주지부 16명이 참석하여 동서화합과 교류협력을 다졌다.

대구지부

대구지부(지부장 남상석)는 12월 11일 수성구 동대구로 소재 아현정한옥웨딩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행사를 성대히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80여 명이 참석해 전우애와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국민의례 △송년사 △공군 홍보영상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경과 시청 △재능기부 장구 공연 등으로 구성된 1부 순서로 시작되었다. 이어 오찬 후에는 △행운권 추첨(20명) △장학재단 임원들의 합창 △빨간마후라 및 공군가 제창이 이어지며 회원 간 친목을 더욱 돈독히 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새로 가입한 정회원 15



명에게는 대구지부가 자체 제작한 전우회 모자가 무료로 증정되었으며, 내빈과 전 회원에게는 달력과 타올, 기념품이 배부되어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송년행사는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자리로, 회원들의 단합과 전우회 발전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로 마무리되었다.

인천지부

인천지부(지부장 최용주)는 11월 14일 가족을 포함한 34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안보견학을 실시했다. 회원들은 이날 제3땅굴을 방문해 분단 현실과 안보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하며 국가 안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졌다. 제3땅굴은 1978년 발견된 북한의 남침용 땅굴로, 서울까지 불과 52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수천 명의 병력이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번 견학은 회원과 가족이 함께한



뜻깊은 자리로, 전우애와 화합을 다지는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의지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제주지부

제주지부(지부장 강형근)는 12월 11일, 노형동 소재 조마루 노형점에서 정기 월례회의 겸 송년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20명이 참석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전우애를 다졌다.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전우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회원들의 노고에 대한 치사 △지부장의 제주지역 안보단체 활동 보고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와 건강을 당부하는 시간 등이 이어졌다.



이번 송년행사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회원들은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해에도 건강과 단합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강릉지회

강릉지회(지회장 최원규)는 11월 6일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351고지 전투지원작전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중 준장(제18전투비행단장)을 비롯한 부대 장병과 공군전우회 강릉지회 회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351고지는 6·25전쟁 당시 동부전선 최북단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전방 요충지로, 지상군의 치열한 격전과 함께 강릉기지를 중심으로 한 공군 항공지원이 강원 영동지역 방어선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던 곳으로 해마다 기념식을 열어 작전의 의미를 다지고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있다.

이어 강릉지회는 11월 18일 강릉 체력단



련장에서 한마음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시내 식당에서 11월 정기회 겸 송년모임을 열었다. 금년 마지막 모임에는 많은 전우회 회원들이 참석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전우애를 나누며 한 해를 마무리했다.

사천지회

사천지회(지회장 박갑용)는 12월 19일 오후 임원과 가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냉면'에서 '2025년 안보다짐대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안보 의식과 의지가 약화되는 현실 속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경계하며,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나라사랑과 안보를 공군전우회가 앞장서 지켜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며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저물어가는 2025년



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에는 가정의 건강과 행복, 전우회의 번창을 기원하며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성남지회

성남지회(지회장 박문석)는 12월 12일, 2025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분당구 소재 남영갈비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성남지회의 연간 활동 결산을 진행하며 회원 상호 간의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박문석 지회장은 '공군전우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 공헌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나가자'고 하였으며, 특히 성남지회 고문인 예비역 정수장군이 덕담을 전해 분위기를 더욱 뜻깊게



만들어, 참석자들이 시종일관 활기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화천지회

화천지회(지회장 김철준)는 지난 12월 16일 정기 월례모임과 함께 2025년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회원들이 한 해를 돌아보며 전우애를 다지고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임기를 마무리하는 지회장은 그동안 함께해 준 회원들의 협력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화천지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새해에도 더욱 활기찬 활동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